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요즘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좋으면 그게 맞는 거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공부나 진로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혹시 그 기준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주고, 그 돈으로 은 신상을 만들어 집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 자신만의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만든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지만, 미가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결국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언제든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공부가 힘들 때, 친구 관계가 어렵게 느껴질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기준을 낮추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판단하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내 기분인가, 친구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주의 손이 다 같이

말씀봉독 사사기 17:1~6절 다 같이

설교 내가 옳은 대로 살면 괜찮을까?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주의 손이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기준대로 살아가려 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선택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1. 미가는 왜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2. 나는 요즘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